

나지 않았음이야.

이 두 아이는 타고나길 신랑해서 나날이 그 착한 성정이 깊어졌지. 어느 일요일, 먼동이 터올 무렵, 엄마들이 왕굴 나무 성당에 첫 미사를 보러 가 있는 동안,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온 흑인 여자 노예 한 명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바나나나무 아래서 나타났다네. 그 여자는 해골처럼 수척했고, 옷이라곤 허리에 두른, 길레로 쓰는 천 쪼가리 하나 밖에 없었지. 그 흑인 노예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 하던 비르지니의 발치에 몸을 던지고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네.

“아가씨, 도망쳐 나온 이 불쌍한 노예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한 달 전부터 이 산속을 헤매면서 빈빈이 추격 나온 사람들과 개들에게 쫓기느라 배가 고파 거의 죽기 직전이랍니다. 저는 흑강(黑江)에 사는 돈 많은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저를 이렇게 학대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노예는 채찍질 당해 기다란 자국으로 움푹 움푹 살이 패인 상처투성이의 몸을 비르지니에게 보여 주었네.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물에 빠져 죽어버릴까 싶었지만, 아가씨께서 여기 살고 계신 것을 알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아직은 착한 백인들이 있으니까,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

비르지니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그녀에게 대답했네.